

보도반박



보도 배포 후 즉시 배포 2021.11.9.(화)

금융위 구조개선정책과장 손 성 은 (02-2100-2910) 책 임 자

담 당 자

최 상 아 서기관 (02-2100-2911)

제 목 : 공적자금관리위원으로 추천된 위원은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적절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. (국민일보 11.9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)

- 1. 기사내용
- □ 국민일보는 11.8일 ''공자위' 민간위원에 비자격자 내정 논란…전 무성 결여 우려, 제하 기사에서
 - "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전문성 결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",
 - "위원을 추천한 **국회와** 결정권을 가진 **금융위**는 **문제가 없다는 입장**".
 - "○○금융지주 사외이사에 재직 중인 것을 두고 금융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"고 보도하였습니다.
-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- □ 금융위원회는 **국회 정무위원회**가 **관련 법령***에서 **규정한 요건을** 적절히 갖춘 경제전문가를 공적자금관리위원으로 추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
 - *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제3조(민간위원의 전문성에 관한 요건) : 2. 경제학·경영학·재무이론 상법 그 밖의 경제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이상 근무한 사람…
 - 이번에 추천된 위원은 경제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*을 갖추고 있으므로,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 - *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('09년~'10년),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('16년~'18년), 금융회사 사외이사('15년~현재) 등 경력 보유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